

## 펼 펼 끊는 광주... 폭염, 9월초까지 간다



광주·전남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16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터미널 앞 도로위로 지열에 의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폭염특보 35일·최고기온 36.9도·최고 체감온도 38.6도 기록 폭우·소나기로 인한 높은 습도가 원인... 온열질환자 56명 발생

올 여름 광주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습도에 '일최고체감온도'가 치솟으면서 펼 펼 끊는 '한중막 무더위'가 계속됐다.

올해 광주 폭염특보는 지난 6월 17일에 내려졌다. 이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것으로 보통 폭염특보가 6월 말 내려진 것에 비해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이번 여름 더위가 평년에 비해 한층 더 높고, 신체적으로 힘들게 느껴지는 원인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른 폭염의 원인으로 상층 고기압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어 구름을 몰아내고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게 만든 점을 꼽았다.

이러 예년보다 서해와 남해 수온이 2-3도 가량 상승한 것도 폭염의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해수온이 1도 높아질 때마다 수증기가 4-7% 가량 증가하게 되는데,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폭염의 정도를 결정하는 일최고체감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여름 광주 폭염 일수도 폭증했다.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광주에 폭염특보는 총 35일 발생했다.

평년 여름 폭염특보가 20일에 미치지 않고, 30일까지 발효된 해가 드문 만큼 여름이 끝나지 않은 시점의 기록으로는 이례적인 수준이다. 이어 일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갈 때 발효되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도 기록을 갱신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미처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광주에

발효된 폭염경보는 이달 10일 제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까지 16일 지속됐다. 뿐만 아니라 카눈이 지나간 직후 다시 광주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지난 15일 폭염경보로 격상되면서, 8월 16일 기준 올 여름 광주 폭염경보 일수는 18일로 늘어났다.

기상청은 오는 9월 초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18년을 제외한 폭염경보 일수 기록(2018년 37일, 2006년 22일, 2021년 21일)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 지난 7월 한달 평균기온과 낮 최고기온, 일최고체감온도 역시 평년보다 높았다. 평년 7월 광주 월 평균기온은 25.9도였지만, 올해는 기온이 대폭 상승해 26.3도를 기록했다.

이러 지난 6일 서구 풍암동에서 올해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 36.9도를 기록했고, 하루 전인 5일에는 북구 운암동에서 35.8도를 기록하는 등 연일 더운 날이 이어졌다. 또 일최고체감온도는 지난 7일 북구 운암동에서 공식기록 상 36.6도, 비공식적으로는 38.6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높은 일최고체감온도와 연이은 폭염특보의 원인으로 장마기간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와 잦은 소나기로 인한 높은 습도를 꼽았다.

지난달 25일 장마가 끝나기 하루 전 광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치솟아 일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 광주 지역에 잦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올 여름 덥고 습한 '한중막 무더위'가 엄습했다는 것이다.

또 서쪽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과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 등 덥고 습한 아열대 고기압들이 번갈아 영향을 끼쳐 광주 지역에 맑은 날씨와 잦은 소나기가 내려 높은 체감온도를 유지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무더운 날씨에 광주지역에서는 온열질환자도 속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광주에서 5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동기간 2021년 31명, 2022년 16명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던 것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폭염과 온

열질환자 폭증에 광주시가 보내는 폭염재난안전 문자 발송 횟수도 크게 늘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8월 16일까지 동기간 동안 2021년 2건, 2022년 0건을 보낸 반면 올해 폭염재난안전문자는 8월15일 기준 2335명으로 2018년 이후 5년만에 2000명 선을 돌파했으며, 사망자는 29명으로 지난해 9명의 3배를 넘어섰다.

한편, 연이은 폭염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2019년 이후 4년만에 폭염위기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가 하면 지난 3일에는 사상 첫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휘발유 2000원 될라"...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혜택을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1달 유류세는 휘발유 615

원, 경유 369원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각각 205원, 212원 낮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의 인하율이 유지돼왔다.

유류세 인하는 이달 말인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서민 생계 부담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는 국회 측 입장과 세수 등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종료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 간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2명도 다동이"

정부,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명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시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탠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북 값 '반토막'... 완도 어민의 눈물 ▶6면

전남 방문의 해 - 문화유산 답사여행 1번지 ▶11면

KIA 양현중, 쉬어 가도 괜찮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Sulwhasoo

### 설화수 자음생크림

####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삼 인삼 사포닌 C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시험 실험 결과(4주 후 사용 결과)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2021년 05월 05일